

류준열 꽃이 피었습니다

형사·조직 양쪽서 버림 받은 인물
깊은 연기...톱배우들 사이 존재감
주연작 잇따라 대기중...기대 만발

“내면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

만개했다는 표현은 과하지 않다. 어느 때보다 깊은 고민과 노력 끝에 얻은 성과로 비친다. 류준열이 22일 개봉하는 영화 '독전'(감독 이해영·제작 용필름)을 통해 이전보다 한 발 더 나아가고, 한 치 더 깊어진 연기로 배우라는 이름에 값하는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류준열은 15일 공개한 자신의 신작 '독전'에서 이전의 촉망받는 젊은 연기 자라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고 그 위로 다시 한 번 우뚝 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전'은 아시아 최대 마약조직을 둘러싸고 그 실체를 쫓는 형사와 조직으로부터 버림 받은 청년이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류준열은 자신을 내버린 조직에 맞서 형사를 돕지만 무표정한 얼굴로 결코 속내를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는, 풀어나기 쉽지 않은 캐릭터를 연기해냈다. 실제로 이날 시사 직후 영화와 류준열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류준열은 조진웅, 차승원, 김주혁, 김성령 등 스타급 선배 배우들 사이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자신감 있는 면모를 과시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모은다. 몸짓과 액션보다는 무표정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지닌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해낸 셈이다. 함께 연기한 조진웅과 박해준 등 선배들이 그에 대해 “젊은 에너지”, “귀감이 되었다”며 내놓은 찬사가 허언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2014년 '소셜포비아'로 장편영화에 데뷔한 류준열은 2년 뒤 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를 전후로 '글로리데이' '더 킹' '택시운전사' '침묵' 등에 주조연급으로 출연했고 전작 '리를 포레스트'를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독전'을 통해 류준열은 완전한 주연급으로서 위상을 그 이전까지 잠시 미뤄 뒀던 것처럼 보인다. 여전히 다양한 배우와 캐릭터 사이에서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낸 그는 이제 오롯한 주연급으로서 자신의 힘을 내보이고 있다.

류준열은 '독전' 이후 '돈'과 '뺑반'을 새로운 주연작으로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남겨줬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영화 '독전'을 통해 완전한 주연급으로 성장한 류준열. 사진제공 | NEW

연예

13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연예 잡학사전>

아이돌의 성장세 공연장 보면 안다

아이돌 가수들의 인기를 객관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는 팬덤이다. 각 가수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에 동원되는 팬 수를 보면, 그 팬덤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공연장은 가수들의 성장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현재 국내에서 실내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설은 최대 4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서울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이듯, '꿈의 무대'로 통하는 고척스카이돔에 서기까지, 가수들이 거치는 '코스'가 있다.

대부분의 아이돌 가수들은 1300명에서 1800명까지 동원하는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 서울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공연을 시작한다. 이후 팬덤이 어느 정도 커지면 2500~3000석 규모의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이나 잠정체육관에서 공연을 한다. 다음 코스는 스탠딩티켓을 얼마나 판매하느냐에 따라 입장객 수가 달라지는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이다. 최대 5000석이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는 웬만한 아이돌 가수들도 매진시키기 어렵다는 체조경기장이다. 티켓 파워를 갖지 못하면 채울 수 없는 곳이다. 고척스카이돔이 생기기 전까지는 실내공연장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1만 명에서 1만5000명까지 동원할 수 있다.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박명, 샤이니, 비스트, 엑소, 소녀시대 등 최정상 케이팝 가수들만 체조경기장에서 사흘간 공연할 수 있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이 고척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벌이며 “악스홀(현 예스24라이브홀)에서 시작해 체조경기장을 넘어 여기까지 오게 됐다. 팬들 덕분에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 명실상부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방탄소년단도 이런 ‘코스’를 차근차근 밟은 것이다. 이정연 기자

편집 | 김형조·고정일 기자

‘기름진 멜로’ 이미숙·박지영, 역시 찰떡호흡

‘질투의 화신’ 이후 2년 만에 재회
사모님 vs 가정부 티격태격 재미



이미숙

박지영

배우 이미숙과 박지영의 ‘콤비 플레이’가 또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미숙과 박지영은 현재 방송중인 SBS 월화드라마 ‘기름진 멜로’를 통해 ‘질투의 화신’ 이후 2년 만에 재회했다. 이들은 각자 맡은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며 2년 전과 같은 앙상불을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의 조합은 보통의 ‘위앤스’와는 또 다른 매력이어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안겨준다. 극중 이미숙은 세상 물정 모르는 재벌가 사모님 역으로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여준다. 박지영은 이미숙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다 중국집에 취직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여장부의 캐릭터다. 정반대 성격의 인물을 맡은 두 사람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맛깔스럽게 각자의 캐릭터를 소화하고 티격태격 충돌하면서 극의 재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미숙과 박지영은 ‘질투의 화신’에서 나란히 ‘걸크러시’ 매력을 뽐내며 시청자의 눈

길을 사로잡았다. 같은 남편을 둔 두 사람이 한집에 동거하며 같은 일터에서 매일 부딪히고 으르렁대는 상황을 ‘막장스런집’ 앞에서는 유쾌하게 풀어가는 힘을 보여줬다. 두 사람의 열연은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과 인기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이 2년 만에 재회한 배경에는 서숙향 작가가 있다. 서 작가는 ‘질투의 화신’에서 활약한 이들을 자신의 신작인 ‘기름진 멜로’에 캐스팅했다.

드라마 제작사 측은 “2년 전의 호흡에 힘입어 촬영장에서도 캐릭터 분석을 빠르게 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베테랑 연기자이다보니 특별히 주문을 하지 않아도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전지적 참견시점’ 존폐의 기로에 서다

MBC 진상조사위 “고의성 없었다”
현재 제작 올스톱...폐지설은 부인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뉴스속보 화면을 삽입해 논란을 일으킨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세월호 참사 보도 화면을 사용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16일 서울 상암동 MBC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폐지를 논의한 바 없다”며 시중의 폐지설도 부인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인기의 핵심인 이영자의 녹화 불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시청자들의 거부감도 큰 상황이라서 제작진으로서도 촬영 재개에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해 최승호 사장이 부임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과거 왜곡 보도를 반성하고 사과한 MBC가 또 다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아프게 만든 ‘사고’를 일으킨 상황도 그 고민을 키우는 요소다.

조사위원을 맡았던 전진수 MBC 예능본부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참시’ 존폐 여부에 관한 질문에 “현재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돼 모든 것이 스톱됐고, 출연자들 역시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상태”라면서 “출연자들과 논의해 향후 방송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정리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는 출연자들과 논의해 폐지로 의견이 모아지면 프로그램은 폐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능희 MBC 기획편성국 본부장은 “논란의 시작은 조연출”이라고 밝히고, “조연출은(세월호 피해자들)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고의성으로 어묵 자막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순한 과실로 볼 수 없다. 웃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참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방송 윤리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책임자인 연출, 부장, 총괄 책임자 본부장은 관리감독 소홀과 미흡한 사후 조치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조지아 관광청 with

코카서스 가자!

플패키지 완전일주

출발일정
7/6, 7/13, 8/10, 8/24, 9/7
9/14, 10/5, 10/12, 10/19

349만원~

(16일) 369만원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Tel. 1800-1454